



류 호 영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장

# 건강증진정책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이제 10여년이 경과하였다.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겠으나, 건강증진정책의 시작점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1997년 건강증진기금이 신설되어 운용된 시점을 공식적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건강증진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보였다. 가장 두드러진 증가는 재정 부문에서 나타나는데, 건강증진기금의 성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97년 5월부터 월별 20개비 1갑당 2원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 2002년 2월부터 150원으로 인상되었고, 2004년 12월 30일부터는 354원으로 인상되었다. 2002년부터 건강보험에 1조 내외의 재정을 지원하게 되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건강증진기금의 운용규모는 현재 1.6조에 달하고 있어 1998년 250억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부문의 성장과 함께 공공보건조직과

공중보건사업도 크게 성장하였다. 건강증진사업은 1998년 18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오늘날에는 모든 보건소에서 중점사업이 되었고, 보건소마다 건강증진계, 방문보건계 등 건강증진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확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중보건사업도 크게 확대되어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 4대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모자보건, 구강보건, 정신보건 등 각종 영역별, 인구집단별 건강증진사업으로 분화하고 있다.

학계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였다. 건강증진기금의 연구사업, 민간단체 지원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을 중심으로 학계와 민간단체의 참여가 커지고, 역량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 병행하여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도 개선되어 왔다. 2002년, 2005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차례 수립하며 거

시적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특히,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06~'10)은 광범위한 학계의 참여 속에 4대 분야, 24개 중점과제라는 거의 모든 건강증진분야의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외에도 통계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필두로 각종 조사통계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점영역별 세부 실태조사, 지역사회 조사감시 등과 같은 새로운 통계를 신설하였다.

이성과 같이 국민건강증진분야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난 10여년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양적 성장을 달성한 시기로서 특히 생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공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질적인 발전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건강증진정책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발전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다양한 사회구성주체가 건강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주요선진국의 사례나 세계적인 학문 동향은 사회환경적 접근, 생활터 중심의 장별 접근, 민간과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이 주

요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정책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이 좀더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이외에 민간의 전달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사회 제부문과 어떻게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인지도 주요한 과제이다. 학교, 사업장 등 전통적인 생활터의 중요성이 커짐과 동시에 환경, 교통, 주거 등 외기적 환경영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각 부문간의 연대에 기반한 정책들이 생성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한 과제이다.

국민건강증진분야는 정책 연혁적으로 볼 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로에 서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11~'20)을 준비할 시기이다. 많은 과제가 미결의 숙제로 남겨져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제3차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 하에 발전할 것인지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건강증진정책의 정책방향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학계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 **붙임**